

아미노산 국제학술대회 개최

아미노로직스는 바이오 시장의 가능성을 탐색하는 <제1회 글로벌 아미노산-펩티드-단백질 컨퍼런스>가 10월14일 이화여자대학교 LG컨벤션홀에서 열린다고 10월13일 발표했다.

컨퍼런스는 지식경제부 산하 WPM(세계시장선점 10대 소재개발사업) 바이오메디컬 소재 사업단과 이화여대 지능형 나노바이오소재 연구센터가 공동 주최하고 지경부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 후원한다.

국내외 참석자 200여명은 바이오 핵심소재인 아미노산의 중요성과 아미노산을 기반으로 한 펩티드, 단백질 관련 산업구조와 앞으로 R&D 방향에 관해 발표 및 강연을 진행한다.

특히, 일본 도쿄대 히로야키 수가 교수는 인공 아미노산을 응용한 새로운 단백질 프로그래밍을 주제로 발표하며 서울대 이윤식 교수는 펩티드 응용 화장품 신소재 개발에 대해 발표한다.

2010년 WPM 10대 사업단에 포함된 아미노로직스는 앞으로 비천연 아미노산 세계시장 공략을 위해 한국 업체들과 계약을 맺어 국내 및 해외 제약기업에 비천연 아미노산 공급에 나설 예정이다.

학술대회장을 맡은 이화여대 최진호 석좌교수는 “국내 아미노산 플랫폼 기술의 확립과 양산 기술의 완성으로 기술패권국의 위상을 확고히 하며 관련사업 분야로 적용해 나갈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아미노산은 생물의 몸을 구성하는 단백질의 기본 구성단위이며, 펩티드는 2개 이상의 아미노산이 연결된 중합체이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1/10/14>